

시인이 생각하는 30년 후의 의학

遊戲 아니면 空白상태

■ 趙 炳 華



시(詩)가 필요없는 시대가 올지도

30년 후엔 시(詩)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유희, 아니면 공백상태, 이러한 시무용론(詩無用論)이다. 시(詩)가 필요없는 시대로 변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모든 인간들이 자기기계적으로 생존하고 있을 뿐, 정신의 고통이나, 영혼의 갈망이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뜨거운 꿈, 동경 같은 것이 사라져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정신의 문제이고, 인간 영혼의 문제이고, 어

더까지나 인간의 생존, 그 존재의 가치의 문제를 감도는 인류의 꿈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꿈이 없는 인간들에게 시가 필요없는 거다. 그것이 영혼적이건, 현실적이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뜨거운 갈망 내지는 동경, 그러한 꿈이 없는 인간들에게 시나, 철학이나, 이러한 인간정신의 작업은 한푼어치의 가치도 없다.

지구는 인간으로 오염되고

지금 지구상의 인구는 38억이라고 한다. 이러한 추세로 보아 지금으로부터 30년 후면 70억, 80억이 된다고 하니 지구는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는 인간으로 초과잉이 될 것이다. 지구는 인간으로 오염이 되고, 그 공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혹독한 식량부족, 에너지부족, 교통마비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밀집 속에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속에서 어디 인간정신의 여유를 찾을 수 있을진가. 그저 정신의 마비상태 속에서 세월을 세월하다가 목숨 떨어지면 그저 한마리 풀벌레처럼 사라져 갈 것이다.

보다 넓은 「인간」을 살려고
꿈꾸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중학, 대학을 다닐 때만 하

3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가

더라도 시가 많이 읽히고, 철학이 많이 읽혔다. 그 때 서울의 인구는 30만 참으로 넓은 하늘, 넓은 땅덩어리, 넓은 꿈을 가지고 여유 있게 생각하고, 여유 있게 행동하고, 여유 있게 미래를 찾아, 참으로 넓은 「인간」을 살려고 꿈을 더듬었었다. 그때 시는 영혼의 촛불이었고, 그 빛이었고, 그 광명이었고, 그 위안이었고, 그 희열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간정신의 초원을 찾아서 끝없는 혼자의 영혼의 여행을 해 왔었다.

그런데 오늘날, 시를 읽는 독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가장 많이 시를 읽고, 시를 살고, 시를 찾아야 할 학생층이 시와 먼 거리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사 자체도 많이 변질이 되어 이상한 각도로 시가 변져나가는 원인도 있겠지만, 모든 인간들이 사회 현실에 오염되고, 물질에 오염되고, 출세에 오염되고, 금전에 오염되어 맑은 정신의 고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의 필요성, 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큰 원인이 있을 거다.

다량(多量)의 빈곤(貧困)시대

우리는 이러한 다량(多量)의 빈곤(貧困) 속에서 살고 있는 거다. 인구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물자가 많아지고, 물품이 많아지고, 교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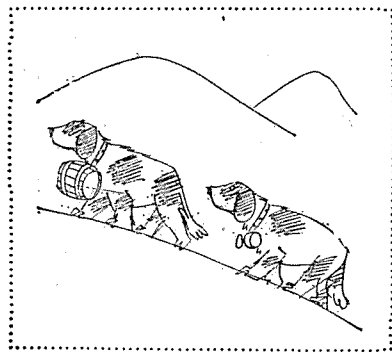
많아지고, 거래가 많아지고, 사건이 많아지고, 모든 일들이 만지처럼 많아져서 생존이 바빠져 버렸다.

때문에 정신의 샘은 점점 더 말라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역사의 추세를 볼 때 30년 후면 더 더 심각한 인간의 건조시대(乾燥時代)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 시는 아주 멸망해 버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 있다손 치더라도 그건 유희, 아니면 공백, 인간의 혼이 들어 있지 않은 언어로 존재하지나 안을까……. 컴퓨터가 만들어 내는.

시는 인간이 있는 곳에 있고, 인간의 혼이 있는 곳에 있고, 인간정신의 꿈이 있는 곳에 있고, 보다 더 푸른 초원을 찾는 인간의 생명이 있는 곳에 있는거다. 그러나 30년 후엔 불행한 예측이지만 영혼을 잃은 인간들의 시대, 시는 메마른 풀이 되어 있는 거다.

<필자=詩人·경희대 문리대학장>



특집 / 미래의 의학